

제13편 - 덕소신앙촌 시대 <제1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52회)

제13편
 덕소신앙촌시대 <제1부>
 - 제2 신앙촌인 덕소신앙촌
 1) 덕소신앙촌 건설 당시의 상황
 2) 제2신앙촌의 건설(덕소신앙촌)
 二. 덕소신앙촌은 해약이긴자 회복의 상징
 三. 144,000의 왕의 수

一. 제2신앙촌인 덕소(德沼)신앙촌

1) 덕소신앙촌 건설 당시의 상황

제2신앙촌이 건설될 당시의 주위 상황을 개략(概略)하면 다음과 같다. 1957년도 소사 제1신앙촌을 건설하고 1958년 12월 27일 자유당 정권에 의해 1차로 구속된 박태선 장로님은 1960년 3월 26일 석방되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나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이기봉 박마리아 일가는 집단 자살로 막을 내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후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1960년 7월 6일 전도관 공식명칭이 제정되었고, 종교법인을 설립하여 문공부의 인가를 받았다. 전도관 공식명칭은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로 했다. 또 종교법인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이다. 또 1960년 8월 15일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헌장(憲章)을 제정했다. 그리고 1960년 12월 10일에는 동아일보 사건이 일어나 많은 교인들이 구속되었다. 옥중에서 나오신 영모님은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그리고 장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 장면 민주당 정권은 영모님의 전도관 신앙촌 역사를 눈엣가시같이 보고 있었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바티칸이 박태선 영모님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장면정권에 전달했다는 말도 있었다. 장면 총리는 카톨릭 신자였고 장면정권은 카톨릭의 정권이라

고 알고 있었다. 영모님은 이러한 흐름 속에 또 한 번의 난관이 닥쳐오고 있음을 보고 계셨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교 말씀 중에 빠뜨리지 않고 꼭 하는 말씀이 있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마21:44)"라는 성경 구절을 들어 강하게 경고성 설교를 하시면서 순회를 하셨다. 영모님은 이런 강력한 설교 말씀 중에 개인이건 집단이건 하늘의 뜻을 가로막는 자는 박살나게 되어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되었건 어떤 집단이 됐건 가로막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을 순회하셨다.

전도관 교인들은 영모님의 역사를 영모님 개인의 역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6000년 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리에 이루려고 구세주를 찾아 키워 세우실 사명이 그분에게는 있는 것이다. 만일 이분의 역사가 가로막는 세력에 의해서 실패로 끝난다면 구세주 출현의 역사도 실패로 끝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양보를 하실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영모님의 역사였던 것이다.

자유당 정권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였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영모님과 전도관을 싹 쓸어 없애겠다고 공공연히 말한 한 명의 모씨는 유세 도중 열차 속에서 급사를 했는데 영모님은 하늘의 성령의 송곳이 내려쳐서 이미에 꽂혔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한 사람도 대통령 유세 도중 중병에 걸려 치료차 미국에 급히 갔으



박태선 장로님(좌)과 성경권 역학의 박정희 대통령

나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영모님 축복하신 생수를 받았는 물, 코삿은 물이라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조리 정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영모님을 옥에 넣고 죽이려고 획책했던 자유

당 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셨던 것이다. 영모님이 옥중에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는 민주당의 장면 교황청 정권이 이 역사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천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몰락으로 알 수 있어

당 이기봉 정권은 여지없이 온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모님의 역사를 훼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양보를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모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절치부심(切齒腐心)하시면서 6000년간 준비해 오신 에덴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띄어놓는 매우 중요한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러서거나 용서하지 않으

결국 영모님의 예측대로 1961년 1월 27일 장면정권은 박태선 영모님을 구속하게 된다. 죄명은 자유당정권 시절 선거법 위반이었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1차 구속으로 인하여 하늘의 역사가 많이 망가지고 지연되곤 하였는데 이제 또 장면정권에 의해서 2차 구속이 된 것이다. 분명 장면정권은 영모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이 당시에 돌던 여론이었다.

드디어 지방 법원의 결심 언도 공판 날짜가 정해졌다. 결심 공판 일자 1961년 5월 16일이었다. 많은 교인

들이 정동에 있는 대법정 결심 공판에 참관하려고 마음이 들떠 있었다. 아무리 대법정이라고 하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는지 빨리 서둘러가서 입장권을 받지 못하면 들어가 방청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판이 있는 날은 다들 새벽같이 서둘러서 법정으로 가려고 서두르곤 하였다.

그런데 새벽같이 정동 법정에 가려고 집을 나선 신앙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신앙촌 내의 확성기에서는 계속 혁명 공약이 방송되고 있었다. 안내원들에게 물어보니 오늘 새벽에 군사혁명이 일어났고, 장면 총리는 어디로 숨었는지 찾을 길이 없고, 군인들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순간 신앙촌 사람들은 그렇다면 영모님의 결심공판은 어찌되는가? 그것이 급급한 일이었다.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재판은 열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설명을 듣고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당시로서는 판단이 잘 서지가 않았다.

한편 군사 혁명이 영모님 공판날짜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연일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군사 혁명은 하늘의 뜻으로 된 것임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하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장면 정권을 하늘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막았던 것이다.

이후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선 영모님과는 영과 옥의 주인공으로서 천지공사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하늘의 짜놓은 역사를 하게 됨을 보게 된다. 박태선 영모님과 박정희 대통령은 동갑인 정사생이다. 또 공화당의 '엄마' 소리의

주인공인 소를 공화당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6000년의 계획된 역사는 힘을 얻어 영육간에 하늘의 계획된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된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그토록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넘기고 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눈부신 경제 기적을 이룬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이것은 다 구세주 출현하는 민족인 단군 민족이 서서히 세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명기 33장 22절에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새끼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극동 한반도에 꼭꼭 숨어있는 은자(隱者)의 나라 한국이 갑자기 세계가 놀라는 나라로 알려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을 말한 것이다. 더욱이 사자는 백수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한국 단군 자손 중에서 왕중왕이 나오시게 되어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된다는 예언인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박태선 영모님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서서히 열리고 있는데 결국 영모님의 사명인 인류의 구세주가 한국에서 출현하게 되는 역사야 성공을 거두게 되면 온 인류는 정말 깜짝 놀라면서 단군 자손의 나라 한국을 동경하게 될 것이다.

開關以來初逢運 三八木運始皇出
 개벽이래초봉운삼팔목운시황출
 농궁가(弄弓歌)

"개벽이래 처음 맞는 운이다. 이것은 삼팔목운 되시는 박태선님이 첫번째 왕으로 출현하셨기 때문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32회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이 만세영원토록 진리의 중심국이 된다고 하리라

生初之樂(七) 생초지락

自然仁義更人化 자연인의경인화
 聲可轉天雷震動瞬能竅電光輝含
 성가전천뢰진동순능변전광휘함
 水口噴風雨作霽 수구분풍우작잠
 波指霧雲射飛 파지무운사비
 時好丈夫令歲月 시호장부령세월
 一將神劍萬邦輝 일장신검만방휘
 狂夫由理豈狂名 광부유리기광명
 天自然降欲亨 천자연강욕형
 拔拳逐擊千魔鬼 발권축격천마귀
 學踊屈踞萬地名 거종굴도만지명
 舞裡神衫神化劍 무리신삼신화검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 어집과 의로움을 겸비하시어 다시 인간으로 오심 이롭다. 인(仁)은 5도72궁 목운(木運), 의(義)는 6도81궁으로 금운(金運)을 의미하고 인의(仁義)가 6도81궁 속에 구현됨을 의미한다. 동(東)과 서(西)가 합하고 목(木)과 금(金)이 합하고 인과 의가 합하여 6도81궁으로 오신 분 정도령을 말한다. 81궁 정도령의 음성은 가히 하늘에 우레 소리가 진동하는 듯하고 는 깜빡할 사이에 번갯불처럼 마귀들을 뒤엎어 버리시니라.

입에서 물을 내뿜으면 비바람을 지어 천지를 적시고 손가락에서는 안개가 파도처럼 일어나고 구름을 쏘아 날리는 듯 하는도다. (감로甘露를 지어 내리는 모양을 묘사) 때는 이 때로다. 좋은 때로다. 정도령이 세월을 호령하

는 도다. 신검(神劍)을 천하 만방에 휘두르니 미친 자들이 어찌 미친 이름을 내밀겠는가? (쫓아 천당·극락·선경을 주정하며 세상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진리의 종교와 학문을 신봉하는 무리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심은 만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함이니라. 천하장사의 주먹으로 천만 마귀를 쳐서 쫓아내듯 하니 마귀들이 떨며 발꿈치를 들 사이도 없이 굴복시킵에 마귀들은 발 붙일 곳이 없느니라. 정도령의 춤사위는 신들린 듯한 가운데 흔들거리는 적삼이 마치 신의 검처럼 신비하고 천변만화함이라.

淸歌音樂成笙 청가음악락성생
 瑞滿心仁儀大更明來也
 서만심인의대경명래야
 定安平聖山庵老始開扉
 정안평성산엄택시개비
 天助隨神入助歸造化
 천조수신입조귀도화
 神屋春榮貴德滿修身潤月肥
 신옥춘영귀덕만수신윤월비
 四海水清龍大飲 사해수청룡대음
 九天雲瑞鶴高飛 구천운서학고비

청아한 노랫소리는 하늘의 생황이 내는 울음과 어우러져 즐거움을 더하고 마음속엔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차고 어질고 예의바른 세상으로 다시 크게 밝아져 오느니라. 안정되고 평안한

성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따라주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귀일하도록 도와주느니라. 정도령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태평성대의 세상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됨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온화한 봄과 같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봄 춘(春)자로 나타내었다.) 영광과 존귀함과 덕이 충만하니 수신(修身)함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게 빛나고 이치러짐이 없느니라. 금강불괴지신(金剛不壞之身)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불사영생체로 거듭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름달은 15진주를 의미하기도 한다.

온 세상의 물은 맑고 용이 크게 그 물을 마셔 토하니 구천(九天)에 구름이 상서롭게 일어나고 학은 하늘을 높이 나르느니라. 정도령이 감로해인으로써 조화를 부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을 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학은 예로부터 신선을 표현한다.

不人見聖真孰謂 불인견성진숙위
 南來鄭氏更明輝 남래정씨경명휘
 吉星還聚中興國 길성환취중흥국
 凶蛇逆從滅亡方 흉사역종멸망방
 萬鳥有聲知主曲 만조유성지주곡
 百花無語向陽香 백화무어향양향
 逐魔試舞劍揮電 추마시무검휘전
 此世號歌聲振雷 차세호가성진뢰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天神

=하나님이 하강(下降)한 성인(사인)불인천신강(似人非人天神降)이요 진인인데 누가 이르기를 남조선으로 오신 정도령이 바로 그 분이요 세상을 크게 밝게 하시리라 길성(吉星)이 돌아와 하늘의 기운을 모아 남조선 대한민국을 크게 일으키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독사(마귀)를 거꾸로 따르는 자가 멸망하는 곳도 남조선 대한민국이니라. 수많은 새들이 저저금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듯 노래하며 온갖 꽃들은 말없이 봄별을 향해 향기를 내뿜는구나. 세계만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그렸다.

마귀를 쫓아내려고 손을 흔들며 추는 춤은 마치 번갯불이 번쩍이는 신검(神劍)을 휘두르는 듯하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마치 우레소리와 같이 퍼져 나가는도다.

幾千年之今始定 기천년지금시정
 大和通路吉門開 대화통로길문개
 此言不中非天語 차언부중비천어
 時不開否道令 시불개부도령
 如今未覺弓弓去 여금미각궁궁거
 何時更待又逢春 하시경대우봉춘
 萬神護面此男女 만신호면차남녀
 未覺誰稱大道德 미각수칭대도덕
 世之起言幾國會 세지기언기국회
 朝鮮萬世中興國 조선만세중흥국
 大和門開晝夜通 대화문개주야통
 始起始起萬邦來 시기시기만방래

수천 년 전에 예정된 하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니 정도령이 만사를 크나큰 화(和)로서 대하시니 막혔던 길이 통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吉)한 문이 열리게 되리라. 도를 닦는 자는 화(和)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라는 것이 없는 경지가 되어야 천하만사를 화(和)로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거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和)가 아닌 불화(不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도의 체(體)는 중(中)이요 도의 용(用)은 화(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슨 일에도 화(和)를 이루지 못하면 영생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 높은 옛 선비들은 윤집결중(允執厥中)을 말하였고 중을 잡으면 현실에서는 화(和)로서 용사(用事)하는 것이다. 강중산 선생의 중화경(中和經)의 중화(中和)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때가 열리기 전에는 정도령을 알지 못하리라. 오늘날과 같이 좋은 시절에도 심스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궁궁 즉 심스 정도령이 떠나가면 언제 다시 심스 정도령을 기다리며 또 봄(정도령의 세상)을 맞이할까?

천지간의 모든 선신들이 면전에서 5도 72궁(장녀)과 6도 81궁(장남) 정도령을 옹위하고 보호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도(道)와 덕(德)이 높다고 하겠는가? 세상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만세영원토록 진리의 중심국이 된다고 하리라. 대화합의 문이 밤낮으로 항상 열려서 통하니 세계만방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기 시작하리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